

한국의 진보적 복음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배덕만(건신대학원대학교)

I. 시작하며

한국교회의 신학적·신앙적 주류는 복음주의(Evangelicalism)다.¹⁾ 분명히, 한국교회에도 진보진영이 존재하지만, 수와 영향 면에서 복음주의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교회 위기론이 팽배한 현재, 문제의 중심에도 역시 복음주의가 존재한다. 영성의 부재, 신학의 혼란, 도덕의 붕괴는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증상이다. 영화 ‘퀴바디스’를 통해 그 증상의 구체적 실례들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한국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한기총은 파행을 거듭하며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1) 복음주의는 특정한 교단이나 학파, 혹은 운동을 획일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개인에 의해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를 신학적 자유주의에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며, 신학적·정치적·문화적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개신교 내의 특정한 흐름을 지칭한다. 데이비드 베빙턴의 주장처럼, 복음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신학의 토대로 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구원의 핵심으로 신앙하며, 성령에 의한 중생의 체험과 복음전도를 강조한다.

않으니,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적으로 미약하지만 영향 면에선 간과할 수 없는 한 흐름이 복음주의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주의로 규정하며, 진보진영과 명확히 선을 긋는다. 하지만 교회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선 진보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보수적인 주류 복음주의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는 이 새로운 복음주의를 “진보적 복음주의”라고 칭한다.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위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 그룹의 진보적·실천적 행보는 한국복음주의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진보주의 지형도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그룹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²⁾ 그 역사가 짧고, 주류교회와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류 학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보수진영은 방향을 잃고 진보진영은 힘을 잃은 상황에서, 이 진보적 복음주의의 출현과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류 복음주의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역사와 규모 면에서 왜소하지만, 이 그룹의 지나 온 여정과 가야할 길을 고려할 때, 그 역사와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선 진보적 복음주의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 그룹의 신학적 토대와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것의 역사적 공헌과 한계를 규명하고, 발전적 미래를 위한 과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류대영, “1980년대 이후 보수교회 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8호 (2003. 2): 37-72. 김민아,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1987년 민주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정도가 지금까지 발표된 주목할 만한 연구업적이며, 『복음과 상황』이 2012년에 이 주제를 1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 조명했다.

II. 역사

1. 기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유신이 종식되면서 시작된 “서울의 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막을 내렸다.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같은 해 9월 1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체육관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81년 3월 3일에 제5공화국이 탄생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탄생한 제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몰락할 때까지, 학생·시민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복음주의 내에 새로운 흐름이 출현했다.³⁾ 이 흐름의 중심세력은 대체로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를 지배해 온 보수적 복음주의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콘텍스트’(context)와 ‘텍스트’(text) 사이에서 텍스트를, ‘개인전도와 사회참여’에서 개인전도에 방점을 찍던 관행에 도전하여,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970-80년대를 통과하면서, 진보진영의 치열한 저항과 보수진영의 철저한 방관 사이에서 신앙적 혼란과 양심적 방향을 경험했던 이들이다.

사실, 한국교회의 진보진영은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예큐메니컬운동의 하나님선교, 가톨릭의 해방신학, 그리고 민중신학을 토대로 민주화를 요구

3) “1987년 9월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한 세력이었던 당시의 IVF 간사회는 ‘오늘을 사는 기독교학생의 신앙고백과 결의’를 선언한다. 이 선언은 일부 선교단체와 신학생들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결국 IVF 총무 고지환과 기문연의 유육, 「대학기독신문」의 이종철 등의 주도로 1987년 11월 20일 공정선거감시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복음주의청년학생협의회’가 발족된다. 이들은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공정선거감시단활동을 전개하는데, 공정선거캠페인에는 복음주의 학생들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쓰는 글씨, 2005), 179.

하며 유신체제에 용감히 저항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보수진영은 같은 시기에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일체의 반정부활동에 반대하고 ‘Explo 74’ 같은 대형전도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그런 표면적 정교분리와 달리, 이 시기에 보수진영은 다양한 형태의 조찬기도회와 수많은 반공단체, 그리고 시국기도회를 통해 친정부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⁴⁾ 이런 구도에서, 소수의 양심적 복음주의자들이 진보진영의 용감한 행보에 도전 을 받고 진심어린 지지를 보냈지만, 그들의 이념적 토대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에 대해선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⁵⁾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에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1984), 한국 헨리조지협회(1984), 기독교문화연구회(기문연, 1986)가 각각 조직되었다. 기학연은 1981년에 IVP간사 중심의 기독교세계관 모임에서 기원했고, 1984년 8월에 열린 ‘제1회 집담회’에서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를 결성했으며, 1985년 12월에 계간지 「새로운 지성」 제1권 제1호를 발간했다. 이 모임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반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표적 학술단체로 꾸준히 성장했다.⁶⁾ 하지만 치열한 학문적 활동에 비해, 그런 사상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거나, 시대적 쟁점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⁷⁾ 한편, 한국헨리조지협회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와 고왕인 박사를 주축으로 한 대학가의 지식인들이 조직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감면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시하

4)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는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을 참조하시오.

5) 류대영, 『한국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304.

6) <http://www.worldview.or.kr/about/history>(2015.1.12 접속).

7)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정치·경제적 현실 상황에 대한 참여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전반적으로 사회·정치적 실천보다는 ‘사변으로 흐른 경향’이 많았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22.

면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경제사상을 전파”했다.⁸⁾ 끝으로, 기문연은 1986년 서울대학교 오월제에서 학생의 분신과 예수대행진운동에 대한 반성의 열매로 탄생했다. 기문연은 1986년 10월에 기관지 『대학기독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봉천5동에서 공동체를 실험했으며, 도시빈민운동과 각종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의 활동은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기문노련)으로 이어졌고, 1990년에 ‘기문노련사건’이란 공안사건으로 비화되어, 11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4개월 이상 옥살이를 했다.⁹⁾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복음주의청년연합(복청, 1986)이 조직되고, 이것을 모체로 ‘공정선거감시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복음주의청년학생협의회’(복협, 1987)가 결성되었다. “서울지역 교회와 캠퍼스 선교단체 청년 2000여 명이 참가한 복협의 선거감시운동은 보수교회 출신의 기독교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자발적 집단적으로 대응한 첫 운동으로 평가받는다.”¹⁰⁾ 하지만 이들은 대선에서 “민주정부 수립 실패라는 패배감과 운동성격의 한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¹¹⁾ 한편, 기독교세계관운동에 참여했던 온건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1987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1989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연속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로써, “사회참여적 복음주의자들은 본격적인 시민

8) <http://landliberty.org/xs/intro1>(2015.1.12 접속). 정지영은 이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들은 은사주의자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탈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답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적 정치, 복음주의 공동체, 제3의 물결운동 같은 새로운 시각을 한국교회에 불어넣었다.” 정지영,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신학을 찾아서,” 『복음과 상황』 제260호 (2012년 6월), 37.

9) 김은석, “우리의 우정과 연대의 시효는 아직 다하지 않았다. 김희권 목사가 말하는 87년형 복음주의 태동기.”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년 2월), 71.

10) 김은석, “‘87년형 복음주의’의 정치참여-선거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황』 제258호 (2012년 3월 28일),

11) Ibid.

운동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¹²⁾ 이들은 기독교 진보진영의 역사적 공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마르크스주의, 민중신학, 폭력혁명론 등에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체제내의 합법적 개혁을 추구했다.¹³⁾

2. 발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1990년대에 한국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먼저, 1993년에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이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둘째, 1997년에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는 미국중심, 재벌중심의 신자유주의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동시에, 한국교회도 근본적 변화를 경험했다. 무엇보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부자세습으로 대표되는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 1988년에 진보진영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교회 대표들이 모여 1989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조직했다. 특히, 2000년대의 시작과 함께 기독교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보수진영의 사회참여는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해졌다. 이로써, 1990년부터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신학적·이념적 갈등을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했다.¹⁴⁾ 이런 상황에서, 80년대 말에 출현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도 갈등과 분화를 경험하며,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사역내용도 다양해졌다.

먼저, 기존의 단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 변모, 확장되었다. 1980년

12) 김민아,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82.

13) Ibid.,

14) 배덕만,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를 중심으로, 1945-2012,”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주최 제5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2), 14-16.

대 기독교세계관운동의 지적 요람이었던 기학연은 2000년에 ‘기독교학문 연구소’로 개명했고, 1984년에 설립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¹⁵⁾와 2009년에 통합하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다시 태어났다. 이 단체의 학술지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가 될 정도로 학문적 성격과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켰다.¹⁶⁾ 한국헨리조지협회는 1996년에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10년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¹⁷⁾과 통합하여 ‘희년함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정의시민연대”와 2007년에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⁸⁾ 또한, 이 시기에 기윤실도 여러 단체로 분화되었다. 먼저, 기윤실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기독교법률가들이 1995년에 ‘기윤실법률가모임’을 조직했고, 이 모임이 1999년에 “개혁적인 복음주의에 기초한 법률가 모임”인 ‘기독교법률가회’로 발전했다. 또한 2002년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04년에 ‘좋은교사운동’이 각각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다.

1980년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로잔운동가들뿐 아니라, 미국의 복음주의 좌파 활동가들의 저서들도 국내의 다양한 출판사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먼저, 이 시기에 존 스토틀와 함께 그의 후계자로 알려진 크리스

15) “1981년 카이스트교회와 대학원생 양승훈, 조성표, 원동연 등은 세속화된 현대사회에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학문을 강의하는 기독교대학의 설립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연구모임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기대설)를 조직했다.” 정지영,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신화를 찾아서,” 36.

16) <http://www.worldview.or.kr/about/history> (2015년 1월 20일 접속).

17) 희년운동은 한국 교회와 기독교계에 희년사상을 전파하고 교회가 희년실천주일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성토모가 모태가 되어 희년의 현대적 실천에 동의하는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2007년 5월 14일에 만들어진 기독교 연합단체다.

18) 장진호, “80년대 이후 한국 복음주의의 경제관과 실천,” 『복음과 상황』 제261호 (2012년 7월), 76-7.

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글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¹⁹⁾ 또한 이미 국내에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던 로널드 사이더(Ronald J. Sider)와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 외에, 짐 월리스(Jim Wallis), 토니 캠펠로(Tony Campolo), 브라이언 맥클라렌(Bryan McClaren), 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 쉐인 클레어본(Shane Claiborne),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도널드 데이튼(Donald W. Dayton) 등이 새로 소개되어 널리 읽혔다.²⁰⁾ 이들은 복음주의에 근거한 진보적 성향의 정치참여뿐 아니라, 이머징교회, 신수도원주의, 영성신학, 재세례파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실험하고 있다. 이런 저자와 주제들은 오랫동안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IVP 외에, 홍성사, 대장간, 새물결플러스, 성서유니온, 아바서원, 포이에마, 북잇

19) 크리스토퍼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06);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2011),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등.

20) 짐 월리스의 『회심』, 정모세 옮김 (서울: IVP, 2008), 『하나님의 정치』, 정성목 옮김 (서울: 청림, 2008),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배덕만 옮김 (서울: 살림, 2009), 『가치란 무엇인가』(2011), 『부러진 십자가』, 강봉재 옮김 (서울: 아바서원, 2012), 『하나님의 편에 서라』,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4)가 연속적으로 출판되었으며, 토니 캠펠로의 『친밀하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윤종석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09), 『레드레터 크리스천』, 배덕만 옮김 (대전: 대장간, 2013), 『예수혁명』, 안종희 옮김 (서울: IVP, 2014) 등이, 브라이언 맥클라렌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김선일 옮김 (서울: IVP, 2008), 『다시 길을 찾다』, 박지은 옮김 (서울: IVP, 2009),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 김선일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0), 『기독교를 생각한다』, 정성목 옮김 (서울: 청림, 2011), 『정의 프로젝트』, 김복기 옮김 (대전: 대장간, 2014) 등이 소개되었다. 존 하워드 요더의 대표작인 『예수의 정치학』이 2007년에 IVP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고, 『근원적 혁명』을 포함한 요더의 저서들이 대장간출판사에서 ‘요더 총서’ 시리즈로 지금까지 11권이 출판되었다. 쉐인 클레어본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배웅준, (서울: 규장, 2007), 『대통령 예수』, 정성목 옮김 (서울: 살림, 2010), 『행동하는 기도』, 이지혜 옮김 (서울: IVP, 2010),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제자도』, 박종금 신광은 공역 (서울: 정연, 2010)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0),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홍병룡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삼위일체와 교회』, 황은영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광장에서 선 기독교』, 김명운 옮김 (서울: IVP, 2014)이, 그리고 도널드 데이튼의 『다시 보는 복음주의 유산』, 배덕만 옮김 (서울: 요단, 2003)이 각각 국내에 소개되었다.

는 사람, 살림, 청림, 요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통·확산되었다. 비록 이들이 대형출판사들은 아니지만, 사명감을 갖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출판사들은 국내 활동가들의 저서들도 적극적으로 출판 및 후원하고 있다. 이 영역의 제1세대인 손봉호, 이만열, 이승장 외에,²¹⁾ 제2세대의 지도자들인 강영안, 박득훈, 이문식, 김희권, 백종국,²²⁾ 그리고 제3세대로 분류되는 권연경, 김근주, 김형원, 김동춘, 구교형, 양희송 등이 주목할 만한 저자들이다.²³⁾

주목할 만한 언론매체들도 출현했다. 1991년에 설립된 「복음과 상황」, 2000년에 창간된 「뉴스앤조이」가 대표적이다. 「복음과 상황」은 ‘복창’ 활동가들이 편집위원들로, 「기문연」이나 「대학기독신문」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실무자들로, 홍정길, 이만열, 손봉호, 김진홍 같은 교계 지도자들이 공동발행인으로 합류하여 창간되었다. 하지만 내부갈등으로 “2년 만에 이승재 편집장과 이종철 기자가 하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²⁴⁾ 그럼에도, 「복음과 상황」은 살아남아 2015년 1월 현재 290호를 발행했다.²⁵⁾ 한편, 「뉴스

21) 이만열의 한국교회사 연구로,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1993),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한국 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2001) 등이 있고, 손봉호의 저서로는 『나는 누구인가』(1986), 『고통 받는 인간』(1995), 『기독교와 복음』(2001), 『생각을 담아 세상을 보라』(2008) 등이 있다. 이승장은 『새로 쓴 성서한국을 꿈꾼다』(2001),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2001),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2004),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2013) 등을 썼다.

22) 강영안은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2007),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2009),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2012)를, 박득훈은 『돈에서 해방된 교회』(2014), 이문식은 『통일을 넘어 평화로』(2007), 『이문식의 문화읽기』(2011)을, 김희권은 『김희권 목사의 청년 설교 1, 2, 3』(2009, 2013), 『다니엘서』(2013) 등을, 백종국은 『바빌론에 사로잡힌 교회』(2003) 등을 출판했다.

23) 권연경, 『내가 읽는 것은 깨달느냐?』(2008); 김근주, 『특강 예레미야』(2013); 김형원, 『정치하는 그리스도인』(2012);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2012); 구교형, 『뜻으로 본 통일 한국』(2014);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2012).

24) 김은석, “우리의 우정과 연대의 시효는 아직 다하지 않았다.” 73-4.

25) “「복음과 상황」은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월간지로, 80년대 이후 등장한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의 기관지 역할을 하며 운동 담론과 실천 모습, 인문학적 성서해석, 다른

앤조이」는 “30대 젊은 기자 4명이 한국교회의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고백하며 내일을 고민하는 참 증인이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2005년에 「복음과 상황」과 「뉴스앤조이」가 통합했다가, 2008년 12월에 다시 분리되었다. 2007년에 「미주뉴스앤조이」가 창간되었으며, 2009년에 「뉴스앤조이」가 신문사의 구조를 비영리단체 NGO로 전환했다.²⁶⁾ 「뉴스앤조이」에 대해 정정훈은 이렇게 평가한다.

사실 「뉴스앤조이」는 복음주의운동의 중심적 흐름 밖에 있던 인물군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다. 김종희를 비롯한 일군의 교계신문 기자들이 교회 개혁의 가치를 걸고 보수 교계의 각종 비리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다.²⁷⁾

새로운 형태의 학술운동인 아카데미들도 탄생했다. 기독교청년아카데미(2004), 현대기독교연구원(2004), 청어람아카데미(2005), 기독교연구원스헤미야(2010)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아카데미들은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신학교나 신앙양육을 목적으로 한 개교회의 특강과 분명한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신학강좌들을 체계적으로 개설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왔다. 기독교청년아카데미는 1991년에 시작된 아름다운마을공동체(대표 최철호 목사)의 부설기관으로서, 성서, 철학, 역사 등의 인문학을 주로 강의한다.²⁸⁾ 현대기독교연구원(구, 현대기독교 아카데미, 대표 김동춘 교수)은 “사회적 책임의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제

국가의 복음주의 운동,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주제를 총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민아,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54.

26) <http://www.newsjoy.or.kr/com/com-1.html> (2015년 1월 20일 접속).

27) 정정훈, “한국 복음주의, 혁신 없이 미래도 없다,” 「복음과 상황」 제255호 (2012년 1월), 39.

28) <http://lordyear.cyworld.com/> (2015년 1월 22일 접속).

자도의 영성을 함양하며 현대 상황에서 기독교사상을 연구/교육하는 단체”로서,²⁹⁾ “주로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학술적 강연이나 세미나를 개최”한다.³⁰⁾ 청어람아카데미(대표 양희송)는 “기독교 아카데미면서도 신학중심의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정치, 문예, 인문학, 대중신학, 사회혁신 등에 관한 다양한 강좌들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청년사역 컨퍼런스, 지식수련회, 기독교장연구자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³¹⁾ 한편,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원장 김형원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는 기치아래, 성서한국대회 강사와 운동가들이 신학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든 신학 연구 및 교육 기관이다.³²⁾ 기독교학 입문과정, 심화과정, 연구과정을 개설하고, 팟캐스트, 신학캠프, 특강 등을 통해, 대안적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민감한 신학적 쟁점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³³⁾

현실정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조직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 시작은 1991년에 발족된 ‘공명선거실천 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거위, 명예대표 한경직)다.³⁴⁾ 이 단체는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선거철마다 주요 교단의 총무들이 집행부를 꾸리는 등 한국교회 내 불법선거 감시활동과 공명선거 캠페인을 주도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윤실의 손봉호와 이만열이 핵심적 지도력을 발휘했다.³⁵⁾ 또한 기윤실은 2000

29) <http://daeantology.cyworld.com/> (2015년 1월 22일 접속).

30) 양희송,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현실과 과제,” 「복음과 상황」 제240호 (2010년 9월 27일)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38>) (2015년 1월 22일 접속).

31) <http://ichungeoram.com/intro/history> (2015년 1월 22일 접속).

32) 이종연, “복음주의 시민단체 이렇게 일한다,” 「복음과 상황」 제257호 (2012년 3월), 63.

33) <http://www.nics.or.kr/history> (2015년 1월 22일 접속).

34) 이 단체는 개신교 21개 교단 목회자와 15개 단체가 연합해 사랑의 교회에서 1991년 1월 21일에 발족했다. 김은석, “87년형 복음주의의 정치참여-선거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황」 제258호 (2012년 3월 28일)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68>) (2015년 1월 22일 접속).

년에 “공의로운 정치를 수행할 기독교정치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공의정치포럼’을 창립하여 정치 아카데미 및 세미나를 운영했고, 2003년에는 그 조직을 개편하여 ‘공의정치실천연대’로 다시 출발했다. 2010년에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계파의 한계를 초월해 공의와 인애의 가치를 지방정치에 구현할 인물을 선정해 지원할” 목적으로 ‘희망정치시민연합’이 창립되었다.³⁶⁾

통일문제를 전문적·실천적으로 다루는 단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1993년에 출범한 ‘남북나눔운동’과 이것을 모태로 2007년에 설립된 ‘한반도평화연구원’이 대표적이다. 남북나눔운동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북지원 민간단체”로서,³⁷⁾ “한국 개신교 역사상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이 연합하여 일궈낸 가장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는”다.³⁸⁾ 남북나눔운동은 그동안 꾸준히 대북수해복구를 위한 식량과 복구자재 등을 지원했고, 황해북도 봉산군을 중심으로 한 ‘농촌시범마을조성사업’(주택, 유치원, 탁아소, 보건위생개선, 식수조립 등)을 진행해 왔다.³⁹⁾ 한반도평화연구원은 1993년에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를 모체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정책제안,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독교싱크탱크로서,⁴⁰⁾ 이만열, 윤영관 등의 주도 하에 지속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다, 2006년에 연구원으로 발전했다. 2013년까지 총40회의 ‘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했고,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을 포함한 10권의 총서를 발간했으며, 북핵과 북한이주민정착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

35) Ibid.

36) Ibid.

37) <http://sharing.net/> (2014년 12월 6일 접속).

38) 구교형, “‘87년형 복음주의’,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라”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 2), 81.

39) <http://sharing.net/> (2015년 1월 22일 접속).

40) <http://www.koreapeace.or.kr/> (2015년 1월 22일 접속).

안을 제시해왔다.⁴¹⁾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새로운 연합운동들이 출현했다. 먼저, 뉴라이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항하여 성서한국운동이 시작되었다. 성서한국의 사무총장을 지낸 구교형 목사에 따르면, “소위 복음주의 사회선교 진영이 개별 영역, 개별 단체, 개별 운동가들로 찢겨져 시대적 과제와 공통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각개전투에만 몰두해 있던 우리 운동에 연합 전선을 만들어 한국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공유의식으로 2005년에 출범했다.”⁴²⁾ 2005년부터 열린 전국대회에 매년 1천여 명이 참석했고, 2008년부터 전국대회를 격년마다 개최하며 지역대회를 조직·시작했다.⁴³⁾

둘째, 보수적 교회연합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2014년에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복교연)이 창립되었다. 복교연과 성서한국의 핵심인물들은 상당부분 중첩된다.⁴⁴⁾ 복교연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이 연합체의 신학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복음의 총체성을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나라의 총체적 복음의 기초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는 열정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함을 깊이 깨달아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을 창립한다.⁴⁵⁾

41) Ibid.

42) 구교형, “‘87년형 복음주의’, 그 미래를 네가 만들어라,” 81.

43) 성서한국은 2002년 6월에 ‘제1회 성서한국수련회’를 개최했고, 2003년 9월에 ‘제1회 성서한국 포럼’을, 2005년에 ‘성서한국전국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2008년에는 최초로 ‘성서한국 지역별대회’를 개최하여, 한동대캠퍼스대회, 부산대회, 인천/부천대회가 열렸다. 이후 지역대회는 전주, 대전, 광주 등으로 확장되었다.

44) 복교연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강경민 목사(상임대표), 김형국 목사, 박득훈 목사, 이문식 목사, 정현구 목사. 이사장: 강경민 목사 외 이사 18명. 총무: 구교형 목사, 감사: 최은상 목사, 지도위원: 김세윤 교수, 박철수 목사, 이만열 교수, 이승장 목사.

45)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창립,” 『기독신문』 (2014. 5. 12).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38>) (2015년 1월 22일 접속).

복교연은 성서한국, 느헤미야, 교회2.0목회자운동, 건강한작은교회연합 등과 협력하면서, 정기포럼, 세미나, 수련회 등을 통해 ‘하나님나라 복음과 교회’란 주제를 모색하고, “건강한 목회와 성경적인 교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한국기독교를 꿈꾸며 복음주의 정신에 따른 교회운동”을 추구한다.⁴⁶⁾

III. 분석

1. 신학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론적 돌파구를 제공했던 것은 로잔언약과 기독교세계관운동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나라’ 사상이었다.⁴⁷⁾ 이런 서구 복음주의 흐름은 당시 한국의 새로운 복음주의 세력에게 기독교적 사회참여의 이론적 당위성 혹은 정당성을 제공해주었고, 구체적인 실천방향까지 제시해주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소개, 연구, 적용이 진보적 복음주의의 내용과 형식의 중추를 형성했다.

먼저, 하나님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중요했다.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묵시적 종말론을 신봉하면서, 하나님나라를 영적·내세적으로 이해했다. 이런 종말론은 분리주의, 염세적 역사관, 사회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화시키며, 근본주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⁴⁸⁾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에 의해 하나님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제기

46) cafe.daum.net/evanch2014

47) “198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사회참여의 신학적 정당성을 찾고 있던 복음주의자들의 눈을 열어준 신학적 개념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파장이 큰 것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다.”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303.

48) 배덕만, 『한국개신교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20-5.

되기 시작했다. 조지 래드, 헤르만 리덜보스(Herman Ridderbos), 게하르더스 보스(Geerhardus Vos), 안토니 호크마(Anthony Hoekema) 등이 이런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이 실현되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새로운 해석은 결국 하나님나라의 역사성을 강조했으며, 복음전파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졌다. 개인적 삶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⁴⁹⁾ 이런 신선한 신학이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복음주의자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게하르더스 보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1979년에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를 통해, 그리고 헤르만 리덜보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1985년에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각각 소개된 것이 대표적 예다. 한국에선 김홍전, 최낙재, 윤종하 등의 신학자들이 이런 신사상의 확산에 크게 공헌했다.⁵⁰⁾

둘째, 1974년에 발표된 로잔언약이다.⁵¹⁾ 1974년 7월 16일부터 10일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국제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150여 국가에서 온 약 2,700여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한국에서도 65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로잔언약’으로 알려진 복음주의 신앙고백이 총15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이 언약의 제5항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며, 여기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49) 류대영, 『한국근현대사와 기독교』, 304-24.

50) 정지영,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신학을 찾아서,” 39.

39) 김동춘은 로잔언약과 한국복음주의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1974년에 발의된 로잔언약은 89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사상적, 신학적 격변기를 살아가던 한국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청년세대에게 복음적 신앙의 정체성을 근거로 하면서도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낱같은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였다.”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 (대전: 대장간, 2012), 65-6.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인한다.⁵²⁾

이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 중 서울신대 조종남 교수가 그 내용을 1974년에 발표했으나, 학계나 교계에서 별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⁵³⁾ 당시는 1972년 10월 17일 발표된 유신과 1974년 4월 3일에 의결된 긴급조치4호 속에서 박정희 정권의 철권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일부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유신체제에 강력히 저항했지만, 친정부적 성향이 강했던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교회의 사회참여를 천명한 로잔언약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1985년에 대학생선교단체 ESF의 이승장 목사가 잡지 「소리」를 통해 로잔언약을 다시 소개했다.⁵⁴⁾ 당시에는 전국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으며,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사회참여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시절이었다. 이런 때에 국내에 소개된 로잔언약은 개인전도와 사회참여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며 고민하던 뜻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강력한 자극이 되었

52) 제임스 패커·토마스 오덴, 『복음주의 신앙선언』, 정모세 옮김 (서울: IVP, 2014), 262-63.

53) 조종남 교수는 1974년에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술지 『신학과 선교』에 “세계복음화국제대회와 로잔언약”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고, 1976년에 존 스토틀의 *The Lausanne Covenant*를 번역하여,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입장: 로잔언약해설』이란 제목으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에서 출판했으며, 1978년에 “로잔언약 (*The Lausanne Covenant*)”이란 제목의 글을 『현대사조』에 게재했다. 따라서 이승장 목사가 「소리」지를 통해 한국에 로잔을 최초로 소개했다는 일반적 인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54) 박충, “만년 청년 이승장 목사,” 『복음과 상황』 제251호 (2011년 9월), 234.

다.⁵⁵⁾ 이후 로잔정신을 담은 책들이 한국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1985년에 번역된 존 스토틀의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기독교문서선교회)을 필두로, 하비 칸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엠마오), 톰 사인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두란노), 르네 빠디아의 『통전적 선교』(나눔사) 등이 꼬리를 물고 복음주의자들의 손에 들려졌다.⁵⁶⁾

셋째, 미국과 화란을 통해 수입된 기독교세계관운동이었다.⁵⁷⁾ 화란개혁파의 대표적 지도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향 속에 탄생했던 이 운동은 화란을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라브리(L'abri)를 창설했던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가 이 운동을 주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그의 사상은 사회의 전 영역을 기독교가 장악해야 한다는 소위 ‘지배신학’(dominionism 혹은 reconstructionsim)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 지배신학은 기독교우파의 탄생에 깊이 연루되었다.⁵⁸⁾ 하지만 진보적 복음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카이퍼와 쉐퍼의 책들이었다. 1970년에 쉐퍼의 『이성에서의 도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고, 1971년에는 카이퍼의 『칼빈주의』가 번역·출판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들의 저서들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널리 탐독되었으며, 헤르만

55) 이만열 교수도 로잔언약을 통해 받은 충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술회했다. “로잔언약을 봤을 때 느낀 충격이랄까, 기쁨은 굉장했다. 그래서 로잔언약에 근거를 두자고 합의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활동의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는,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이었다.”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100년사 산책』, 174.

56) 정지영,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신학을 찾아서,” 34.

57) 기독교세계관에 대해선,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서울: IVP, 2008)과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서울: IVP, 2005)을 참조하시오. 보다 간단한 설명은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 117-65를 참조.

58) 쉐퍼와 지배신학의 관계에 대해선, Bruce Barron, *Heaven on Earth?: The Social & Political Agendas of Dominion Theology* (Grand Rapids, MA.: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71-9을 참조. 또한 지배신학과 신사도주의개혁운동의 관계에 대해선, 배덕만, “신사도개혁운동, 너는 누구니?” 「성결교회와 신학」 제29호 (2013년 봄): 90-114 참조.

도이베르트(Herman Dooyeweerd)와 밥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같은 화란 개혁주의 학자들과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 리처드 미들턴(J. Richard Middleton), 브라이언 왈쉬((Brian J. Walsh), 로버트 웨버(Robert E. Weber), 아더 홈즈(Arthur Holmes) 같은 영미권 학자들의 저서들이 연속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⁵⁹⁾ 한국에선 개인적으로 손봉호 교수가, 출판사로서는 IVP가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고, 성인경이 이끌었던 ‘한국라브리’와 김현수 등이 주도한 ‘기독교학문연구회’ 등도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넷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같은 진보신학과 1980년대 대학가를 강타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바야흐로 1960년대에 세계는 해방과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수많은 약소민족들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고, 전통사회에서 억눌렸던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들(특히, 소수인종과 여성)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새롭고 거대한 흐름은 남미 가톨릭 사제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라틴아메리카를 괴롭히던 극심한 빈곤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극도로 무관심한 상황에서, 1968년에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남미주교회 의가 소집되었고, 여기에서 페루의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해방신학』(A Theology of Liberation)을 포함한 여러 책에서, 그는 “이론을 적절한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천’(praxis)을 강조했는데,”⁶⁰⁾ 그의 『해방신학』은 1977년에 성염 신부에 의해 국내에 최초로 번역·소개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한국에

59) 밥 하웃즈바르트,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서울: IVP, 1989),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서울: IVP, 1986), 알버트 월터스, 『창조, 타락, 구속』(서울: IVP, 1992), 브라이언 왈쉬와 리처드 미들턴, 『그리스도인의 비전』(서울: IVP, 1987), 로버트 웨버, 『기독교 문화관』(서울: 엠마오, 1984), 아더 홈즈, 『기독교 세계관』(서울: 엠마오, 1985).

60) 디아메이드 맥클로흐, 『3천년 기독교 역사 III』, 윤영훈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399.

선 민중신학이 탄생했다. 유신체제 하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모순 속에서 특히, 전태일의 분신(1970년 11월 13일)을 계기로, 상아탑에 갇혀 있던 일부 신학자들(안병무, 서남동, 김용복, 서광선 등)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억압받는 민중의 존재와 가치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⁶¹⁾ 이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오랫동안 진보진영의 독점물이었으며, 복음주의는 이런 지적 흐름으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격리시켜왔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소수의 젊은 복음주의 청년들이 이런 흐름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청년들에 의해 기문연이 조직된 것이다. 한국의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을 연구한 김민아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로잔언약이나 기독교세계관운동 등을 낳은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으나, 점차 원론적인 복음주의 신학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사회변혁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 급진적인 사회참여적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민중신학 등 좀 더 급진적인 사회변혁 이론들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기문연과 <대학기독신문> 활동가들이었다.⁶²⁾

끝으로, 로널드 사이더로 대표되는 미국복음주의 좌파의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⁶³⁾ 이들은 19세기 제2차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의 전통

61) “군사정권에 용감하게 대항하여 “시대의 예언자”로 불린 함석헌의 씨알사상, 한국사학계의 진보 진영에서 대두한 민중사관, 김지하의 답시 “장일담”으로 대변되는 민중문학, 그리고 대학가의 탈춤으로 대변되는 민중예술 등이 민중신학의 사상적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사상적 배경 하에 안병무와 서남동을 비롯하여 현영학 김용복 서광선 등 진보적 신학자들이 민중신학을 태동시켰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205.

62) 김민아, “사회참여적 복음주의운동이 한국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52-3.

63) 로널드 사이더에 대한 분석은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 83-103 참조.

을 20세기에 계승한 사람들로서, 1960년대의 격변기를 통과하며 칼 헨리(Karl Henry)와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의 주류 복음주의에서 이탈한 그룹이다. 1940년대에 출현한 신복음주의는 분리주의를 고수했던 근본주의와 일정부분 신학적 교집합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사회참여를 추구했던 진보적 근본주의자였다. 하지만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흑인민권운동, 베트남전쟁, 여권운동, 히피운동, 이민증가 등의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자, 대부분의 신복음주의자들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위축되었다. 이들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 일군의 베이비부머세대 복음주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토니 캠펠로는 이렇게 고백했다. “시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을 통해 행동의 맥락에서 나의 반성은 정치와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 달리 생각하도록 만들었다.”⁶⁴⁾ “비록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정치적 이슈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환경문제, 전쟁, 에이즈, 이민문제까지 확장된다.”⁶⁵⁾ 캠펠로 외에, 로날드 사이더, 짐 월리스(Jim Wallis), 도널드 데이튼(Donald W. Dayton) 등이 대표적 인물이며, 젊은 복음주의자, 혹은 복음주의 좌파로 분류된다. 1980년대에 로날드 사이더의 『복음전도 구원 사회정의』와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짐 월리스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책들은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⁶⁶⁾

64) 토니 캠펠로, 『레드레터 크리스천』, 244.

65)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배덕만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13.

66) 도널드 데이튼, 『다시 보는 복음주의 유산』, 배덕만 옮김 (서울: 요단, 2003), 토니 캠펠로, 『레드레터 크리스천』, 배덕만 옮김 (대전: 대장간, 2013), 짐 월리스, 『회심』, 정모세 옮김 (서울: IVP, 2008).

2. 특징

신학적인 측면에서, 진보적 복음주의는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을 상당부분 극복했다. 전통적으로 한국복음주의는 축자영감설과 성서무오설을 신봉했다.⁶⁷⁾ 하지만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적 성서관에서 한 발 더 진보한 입장을 견지했다. 성경의 가치와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성서학의 새로운 발견들을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지 않았던 것이다.⁶⁸⁾ 특히,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사회, 문화,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체제와 문화를 배타적으로 옹호했던 전통적 성경해석에 저항해야 했으므로, 이런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또한 새로운 신학적 주제로서 하나님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도 확장했고, 오랫동안, 하나님나라는 *Missio Dei*를 주장했던 에큐메니컬 진영의 독점적 주제였으며, 근본주의적 진영은 묵시적 종말론에 배타적으로 경도되어 왔다. 하지만 에큐메니컬적 해석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영향 하에 복음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 보다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⁶⁹⁾ 결국, 진보적 복음주의는 근본주의 및 자유주의 그룹과 구분되는 종말론, 교회론, 선교론을 구성하게 되었다.

67)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48-57.

68) “성서비평학을 터부시하는 한국복음주의 구약학의 태도는 지난 백 년 동안 거의 변한 것이 없다. 성서비평학도 당연히 이론적 약점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성서학은 마크 놀(Mark Noll)이 말한 신앙하는 비평(believing criticism)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소장파 복음주의 성서학자들 중 비평적 방법론을 적절히 수용하고 사용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 특수성을 포함한 성경의 특징을 대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전성민, “한국복음주의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 『복음과 상황』 제260호 (2012년 6월), 64.

69) 이런 새로운 현상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서울: IVP, 2010)과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서울: IVP, 2012)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지성근 목사가 이끄는 IVF 부설, ‘일상생활사역연구소’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속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선교적인 삶(missional life)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연구 발굴제공하”는 것을 사역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회·정치의식적 측면에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보다 좌파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통일운동, 자본주의 등의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영미 복음주의 및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영향 하에 보다 진보적인 사회·정치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친미, 반공, 친자본, 친정부적 성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⁷⁰⁾ 새로운 복음주의자들은 보다 좌파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⁷¹⁾ 물론, 이 주제에 대해 복음주의 내의 세대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정훈의 분류를 차용한다면,⁷²⁾ 1세대 복음주의자들은 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계급문제보다 통일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면, 2·3세대의 경우, 민족주의적 색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계급문제에 더 방점을 둔다. 또한 1세대는 신학적 보수주의 및 교단적 정체성이 강한 반면, 2·3세대의 경우, 신학적 진보성이 강해졌고 교단적 정체성은 더욱 약해졌다. 이런 세대 간의 변화는 미국 복음주의 좌파

70)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363-79 참조.

71) “박득훈, 이문식, 김희권 목사 등은 일정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성경의 정신이 그 근본에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제 질서와 사회체제를 지지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탈자본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경로도 고민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이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이 87년형 복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복음주의운동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정정훈, “복음주의자의 진보 정당 지지, Why Not?,”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년 2월), 38.

72) 정정훈, “한국복음주의, 혁신없이 미래는 없다.” 『복음과 상황』 제255호 (2012년 1월), 34-8 참조. 이 글에서 정정훈은 87년형 복음주의를 1, 2, 3세대로 구분하고, 1세대는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기초 패러다임을 마련한 이들로써” 손봉호, 이만열, 김진홍, 홍정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2세대는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초창기부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간 동안 복음주의 운동단체들의 실무 책임자급 역할을 하였던 이들”로서, 김희권, 김호열, 고지한, 한철호, 박철수, 강경민, 이문식 등이 핵심인물이었다. 끝으로 3세대는 “80년대 변혁적 학생운동의 영향권 아래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사회참여와 교회 갱신을 고민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나라운동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세대”였고, 황병구, 양희송, 윤환철, 양세진, 구교형, 이강일, 최은상 등이 주요 인물로 꼽힌다.

영향이 1세대 보다 2·3세대에 더 강했고,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영향이 이 그룹 내에 보다 깊숙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⁷³⁾ 아무튼, 서구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도에 대한 전통적 강조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입장도 주류복음주의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색채를 보이게 되었다.

운동방식 측면에서, 진보적 복음주의는 대단히 지적 혹은 엘리트주의적이다. 이것은 이전의 보수적 복음주의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통적 복음주의의 사회정치적 표현방식은 소극적 침묵, 친정부적 성명발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등 목회자 중심의 대중동원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⁷⁴⁾ 하지만 새로운 흐름의 복음주의운동은 기본적으로 지식적 목회자, 교수, 전문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대단히 지적 혹은 엘리트주의적인 특성을 보였다. 기독교학문연구소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단체, 「복음과 상황」과 IVP로 대표되는 문서사역,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로 상징되는 시민단체, 청어람과 기독교원인스헤미야를 포함한 학술교육단체 등에서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운동이 크게 의존했던 스토틀와 사이터, 쉐퍼 등은 모두 일급 지식인이었고, 그들의 영향은 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은 불가피했다. 또한 기존의 주류복음주의 운동이 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목회자, 교수, 캠퍼스 사역자, 학생,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원이 다양해 졌고, 활동영역도 교회의 담장을 넘어, 각종 시민단체, 선교단체, 학술단체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

73) 배덕만, “우리식 복음주의를 꿈꾸며,”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년 2월), 64.

74) 배덕만,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를 중심으로, 1945-2012” (2012년 11월 8·9일 동안 “종교, 권력, 그리고 사회감동”이란 주제로 열린 제5차 서울대학교역사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미출판논문) 참조.

어야 한다는 기독교세계관의 영향과, 이 운동의 모판이 서울강남의 대형교회와 수도권 명문대학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3. 비판

현재 진보적 복음주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2년에 「복음과 상황」이 “87년형 복음주의여, 안녕”이란 제목 하에 연중기획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것도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제, 진보적 복음주의가 직면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보자.

무엇보다, 진보적 복음주의 진영에서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보적 복음주의의 역사는 거의 30년에 이른다. 이 복음주의의 결정적 동인은 1987년 6월 항쟁이며, 이에 대한 주요 해법이 존 스토틀, 로날드 사이더, 프란시스 웨퍼였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한국사회는 1997년 IMF를, 2007년 샘물교회와 이랜드 사태를 겪었다. 1997년을 통해 한국사회는 ‘냉전시대’에서 ‘신자유주의시대’로 전이했고, 2007년을 통해 한국교회는 ‘기독교’에서 ‘개독교’로 변모했다. 다시 말해,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배경으로 출현한 진보적 복음주의는 한국사회와 교회가 두 차례의 근원적 자기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여전히 과거의 이슈와 이념에 고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87년에 대안으로 읽었던 스토틀를 2012년에도 여전히 교과서, 심지어 경전처럼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진보적 복음주의의 시대착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둘째,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세계관, 영국복음주의, 미국복음주의좌파 등에 주목하면서, 이들 국가와 한국 간의 근본적 차이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화란개혁교회라는 국가교회의 산물이다. 기본적으로 화란은 사회전체가 통일된 교회(화란개혁교회)의 영향 하

에 건국되었으며, 국민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일정수준의 공통된 인식과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도 기독교가 주류 종교요, 기독교의 영향 하에 주류문화가 형성된 곳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역사가 길고, 이념적 갈등이 극심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는 주류종교가 아니며, 한국사회와 문화 속에선 기독교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전제는 매우 부실하며,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다. 심지어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군부독재 시절을 거쳤고,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과 남북분단은 여전히 진행 중인 현실이다. 특히, 이념적 갈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며 위험하다. 이런 상황은 영국, 미국, 화란에서 전거를 찾기 힘들고, 스토티, 사이더, 쉐퍼, 카이퍼 등의 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현실적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복음주의자들의 이론과 지침을 한국사회에 쉽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지나치게 거대담론에 집착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기본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새로운 복음주의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다. 심지어 1세대 지도자들은 서울 강남의 초대형교회 목사들과 명문대학의 저명한 교수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의 일차적 관심사는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이었고, 신학적 화두는 하나님나라였다. 그들은 서구복음주의의 대표적 지성들의 세련되고 참신한 통찰력에 매료되어, 그들의 사상을 소화·유통하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한국사회는 경제적 파산을 겪었고, 한국교회는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

자가 되었으며, 88만원 세대가 등장했고, 빈부격차는 극에 달했다.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대형교회의 등장과 함께 수평이동이 가속화되었으며, 교회 간의 빈부격차도 극에 달했다. 80%이상의 교회가 미 자립 상태이며,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 하는 목회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와 교회는 생존자체가 위협 받는 극단적 상황에 몰렸으나,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관심은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관심과 국민·교회의 주된 관심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모델과 참조 틀로 삼았던 서구 복음주의의 주된 관심은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진보적 복음주의가 전국적·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끝으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초창기에 함께 했던 대형교회들과 결별하고, 세대교체에 실패함으로써, 물질·인적 토대가 매우 부실해졌다. 이 운동이 초창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두레교회, 할렐루야교회 같은 대형교회들의 재정적·인적 지원과 이만열과 손봉호로 대표되는 학문적·인격적 지도자 그룹, 강경림, 이문식, 박철수, 강영안, 박문재, 김희권 같은 중간지도자 그룹, 그리고 유육, 박정수, 이승재, 김근주, 구교형, 윤환철 같은 청년활동가 그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보수화되거나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이 운동에서 이탈했다. 그 결과, 진보적 복음주의 진영은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적 지지기반을 상실했다. 비록, 그 빈자리를 산울교회, 일산은혜교회, 나들목교회, 영동교회 등이 채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계는 분명하다. 동시에, 지난 30년간 이 진영의 인적 지형도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1세대 지도자, 중간지도자, 청년활동가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의 유입은 더디고 미약하다. 그래서 이들이 조직하고 추진한 여러 단체들이 같은 인물들로 채워지고,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새로운 얼굴을 찾기 어렵다.⁷⁵⁾ 동일한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놀랍지만, 건실한 물질·인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세대교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 진영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징조다.

IV. 결론: 제안

이제, 진보적 복음주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신학을 모색해야 한다. 군부독재의 절정기에 민주, 통일, 개혁이란 거대담론의 토론·투쟁의 장에 뛰어들었을 때,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신학적 지침서가 없었다. 불가피하게,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글을 통해, 자신들이 개척해야 할 길의 윤곽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30여년의 세월이 지났고, 현장도 많이 변했다. 영미복음주의자들에게 배울 만큼 배웠고, 이들 내부의 지적 역량과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다. 동시에, 서구와 이 땅의 역사적·현실적 차이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이들만의 경험과 관점이 녹아든 글이 나와야 한다. 존 스토틀와 론 사이더, 존 요더와 짐 윌리스 같은 학자와 저서들이 한국의 진보적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등장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그만 영미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버리고, 한국형 복음주의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하기 위해, 그들의 글을 써야 한다.

둘째,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들만의 오타리 밖으

75) “이 당시 후배 세대가 조직적으로 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운동판에서 마땅히 왕성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대, 90년대 학번을 찾아보기 힘들다.” 구교형, “87년형 복음주의, 그 미래를 네가 만들라,” 81.

로 나와, 시대의 현실적·기초적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만의 독백이나, 대중들을 계몽·지도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대중의 요구와 속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모든 진보운동의 근원적 한계이자 모순이다. 복음주의는 지성운동이자 대중운동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지평의 확장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적 복음주의의 지성주의적·엘리트주의적 특징은 이 운동의 가장 고유한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제는 지성운동과 함께, 대중운동으로의 지평확장도 모색할 때다.

셋째,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은 이 운동이 좀 더 교회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동안 진보적 복음주의는 천민자본주의와 극단적 반공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사회를 향해 예언자적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또, 지성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의 대형교회들을 대상으로 개혁운동도 전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중소형교회들과 지방교회들에게까지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쏟지 못했다. 이 운동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채, 소수의 서울강남 엘리트 집단의 “동아리활동”으로 머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복음주의는 자신의 관심과 활동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대형교회에서 중소형교회로, 거대담론에서 현실문제로 관심과 운동의 방향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진보적 복음주의는 그동안 주목할 만한 조직들을 구성하고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제, 이들의 질과 규모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목회가 힘들어도 일산은혜교회, 영동교회, 나들목교회 같은 교회들이 건재하고, 출판시장이 어려워도 IVP, 새물결출판사, 대장간 같은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고 있으며, 캠퍼스의 선교환경이 암담해도 IVF, SFC, ESF, 새벽이슬 같은 선교단체들이 용감하게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상황」과 「뉴스앤조이」 같은 언론매체들, 성서한국과 한국 복음주의연합 같은 연합단체들,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같은 비영리단체들, 그리고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기독교청년아카데미, 청어람 같은 학술기관이 어려운 환경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비록, 규모와 영향 면에서 여전히 비주류지만, 이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지혜와 관용이 필요한 시기다.

현실은 어렵다. 하지만 현실이 쉽고 낙관적이었던 때는 이전에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담대하고 정직한 행보가 주목 받고,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세속도시” 한복판에 “신의 도성”을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은 성경과 교회가 전하는 진리이며,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타협 없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 주제어 —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 사회참여, 하나님 나라, 엘리트주의
 Evangelicalism, Progressive Evangelicalism, Social Engagement, Kingdom of God, Elitism.

참고문헌

단행본

- 강영안.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서울: IVP, 2007.
- .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IVP, 2009.
- .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서울: 한길사, 2012.
-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 구교형. 『뜻으로 본 통일 한국』. 서울: IVP, 2014.
- 권연경. 『네가 읽는 것은 깨닫느냐?』. 서울: SFC, 2008.
- 김근주. 『특강 예레미야』. 서울: IVP, 2013.
-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 대전: 대장간, 2012.
- 김형원.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SFC, 2012.
- 김회권. 『김회권 목사의 청년설교 1, 2, 3』. 서울: 복있는사람, 2009, 2013.
- . 『다니엘서』. 서울: 복있는사람, 2013.
- 도널드 데이튼. 『다시 보는 복음주의 유산』. 배덕만 옮김. 서울: 요단, 2003.
- 디아메이드 맥클로흐. 『3천년 기독교 역사 III』. 윤영훈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13.
- 로버트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옮김. 서울: 엠마오, 1984.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0.
- .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홍병룡 옮김.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10.
- . 『삼위일체와 교회』. 황은영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 . 『광장에서 선 기독교』. 김명운 옮김. 서울: IVP, 2014.
- 박득훈. 『돈에서 해방된 교회』. 서울: 포이에마, 2014.
- 밥 하웃즈바르트.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서울: IVP, 1989.
-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 백종국. 『바빌론에 사로잡힌 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03.

- 브라이언 맥클라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김선일 옮김. 서울: IVP, 2008.
- _____. 『다시 길을 찾다』. 박지은 옮김. 서울: IVP, 2009.
- _____.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 김선일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0.
- _____. 『기독교를 생각한다』. 정성묵 옮김. 서울: 청림, 2011.
- _____. 『정의 프로젝트』. 김복기 옮김. 대전: 대장간, 2014.
- 브라이언 왈쉬와 리처드 미들턴.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옮김. 서울: IVP, 1987.
-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서울: 샘터, 1986.
- _____. 『고통 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_____. 『기독교와 복음』. 서울: 한국복음신학연구원, 2001.
- _____. 『생각을 담아 세상을 보라』. 서울: 노잉힘, 2008.
-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2008.
- 웨인 클레어본.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배응준 옮김. 서울: 규장, 2007.
- _____. 『대통령 예수』. 정성묵 옮김. 서울: 살림, 2010.
- _____. 『행동하는 기도』. 이지혜 옮김. 서울: IVP, 2010.
- _____.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제자도』. 박종금 신광은 공역. 서울: 정연, 2010.
- _____. 『예수혁명』. 안종희 옮김. 서울: IVP, 2014.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 아더 홈즈.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1985.
- 알버트 월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옮김. 서울: IVP, 1992.
-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서울: 복있는사람, 2012.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_____.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 _____. 『한국기독교와 민족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2000.
- _____. 『한국 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이문식. 『통일을 넘어 평화로』. 서울: 홍성사, 2007.
- _____. 『이문식의 문화읽기』.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이승장. 『새로 쓴 성서한국을 꿈꾼다』. 서울: 홍성사, 2001.
- _____.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 서울: 좋은씨앗, 2001.
- _____.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서울: 구장, 2004.
- _____.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서울: 홍성사, 2013.
-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쓰는 글씨, 2005.
- 존 하워드 요더.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 _____. 『근원적 혁명』. 대전: 대장간, 2011.
-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배덕만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옮김. 서울: IVP, 1986.
- 제임스 패커·토마스 오펜. 『복음주의 신앙선언』. 정모세 옮김. 서울: IVP, 2014.
- 짐 월리스. 『회심』. 정모세 옮김. 서울: IVP, 2008.
- _____. 『하나님의 정치』. 정성묵 옮김. 서울: 청림, 2008.
- _____.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배덕만 옮김. 서울: 살림, 2009.
- _____. 『가치란 무엇인가』.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1.
- _____. 『부러진 십자가』. 강봉재 옮김. 서울: 아바서원, 2012.
- _____. 『하나님의 편에 서라』.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4.
- 토니 캠펠로. 『친밀하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윤종석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09.
- _____. 『레드레터 크리스천』. 배덕만 옮김. 대전: 대장간, 2013.
- 크리스토퍼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06.
- _____.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
- _____.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2011.
- _____.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 _____.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Barron, Bruce. *Heaven on Earth?: The Social & Political Agendas of Dominion Theology*. Grand Rapids, MA.: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논문 및 기사]

- 구교형. “‘87년형 복음주의’, 그 미래를 네가 만들어라.”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 2).
- 김민아.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1987년 민주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은석. “‘87년형 복음주의’의 정치참여-선거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황」 제258호 (2012. 3).
- 김은석. “우리의 우정과 연대의 시효는 아직 다하지 않았다: 김희권 목사가 말하는 87년형 복음주의 태동기.”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 2).
- 류대영. “1980년대 이후 보수교회 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8호 (2003. 2): 37-72.
- 박 총. “만년 청년 이승장 목사.” 「복음과 상황」 제251호 (2011. 9).
- 배덕만. “우리식 복음주의를 꿈꾸며,”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 2).
- .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를 중심으로, 1945-2012.” (2012년 11월 8-9일 동안 “종교, 권력, 그리고 사회갈등”이란 주제로 열린 제5차 서울대학교역사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미출판논문).
- . “신사도개혁운동, 너는 누구니?” 「성결교회와 신학」 제29호 (2013년 봄): 90-114.
- 송상원.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창립.” 「기독신문」 (2014. 5. 12).
- 양희승.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현실과 과제.” 「복음과 상황」 제240호 (2010. 9).
- 이종연. “복음주의 시민단체 이렇게 일한다.” 「복음과 상황」 제257호 (2012. 3).
- 장진호. “80년대 이후 한국 복음주의의 경제관과 실천.” 「복음과 상황」 제261호 (2012. 7).

- 전성민. “한국복음주의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 『복음과 상황』 제260호 (2012. 6).
- 정정훈. “한국복음주의, 혁신 없이 미래는 없다.” 『복음과 상황』 제255호 (2012. 1).
- . “복음주의자의 진보 정당 지지, Why Not?” 『복음과 상황』 제256호 (2012. 2).
- 정지영. “87년형 복음주의운동의 신학을 찾아서.” 『복음과 상황』 제260호 (2012. 6).

Abstract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Progressive Evangelicalism in Korea

Bae, Dawk-Mahn
(Asia LIFE University)

In Korea, Evangelicalism has been simply identified with conservatism, both theological and political. In the mid-1980s, however, a new type of Evangelicalism began to emerge as a self-reflective response to bo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itiated by the political liberals and the reactionary actions of the fundamentalist Christians. To distinguish it from the conservative Evangelicalism, I call it “Progressive Evangelicalism.” Under its influence, several significant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appeared consecutively: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1984), Henry George Association of Korea(1984), Institute for Christian Culture(1986), Christian Ethic Movement of Korea(1987),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1989).

Since the 1990s, this progressive Evangelicalism has evolved into a variety of organizations, institutions, movements, and campaigns. For example, *Gospel & Context*(1991), Christian Lawyers’ Fellowship(1999), Christian Alliance for Church Reform(2002), Bible Korea(2002), Nehemiah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2010) came into being, and in 2010, Henry George Association of Korea was transformed into 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In addition, a lot of American and English scholars who pioneered or led such trend in

their countries were introduced to Korea with the help of many evangelical publishing companies including IVP. Christopher J. H. Wright, Ronald J. Sider, Richard J. Mouw, Jim Wallis, Tony Campolo, Bryan McClaren, John H. Yoder were only a few of them.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one can notice several remarkable sources which helped to shape its theological identity. The so-called “Kingdom of God theology,” the Lausanne Covenant(1974),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liberation theology, Minjung theology, Marxism, and Evangelical left in America continually and powerfully made a indelible impact upon the birth and growth of the Progressive Evangelicalism in Korea. As a result, it came to have a relatively advanced and open-minded view of critical issues. For instance, its view of the biblical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is more liberal than its fundamentalist counterpart. Its attitude toward social-political issues tends to be somewhat leftist, and its way of action is undeniably elitist, or academic.

Likewise, this Progressive Evangelicalism is highly unique and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Evangelicalism in Korea. To expand and maximize its influence, however, it needs to overcome not only its elitism and academism, but also its heavy dependence on the Western theology so that it can embrace the mass and develop its own theology based on its peculiar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religious environment.

국문초록

한국의 진보적 복음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배덕만
(건신대학원대학교)

한국에서 복음주의는 보수주의와 단순히 동일시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의 민주화운동과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의 반동적 행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복음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보수적 복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진보적 복음주의’라고 칭한다. 이 새로운 유형의 복음주의는 몇 가지 중요한 기관과 조직들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1984), 한국헨리조지협회(1984), 기독교문화연구회(기문연, 1986),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198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989)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1990년대 이후, 이것은 다양한 조직, 기관, 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잡지 「복음과 상황」(1991), 기독교법률가회(1999), 교회개혁실천연대(2002), 성서한국(2002),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2010) 등이 연속적으로 출현했으며, 한국헨리조지협회는 1996년에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10년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과 통합하여 ‘희년함께’로 거듭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 비슷한 운동을 개척하거나 주도했던 학자들이 IVP를 포함한 여러 복음주의 출판사들을 통해, 국내에 꾸준히 소개되었다. 존 스토티, 크리스토퍼 라이트, 로날

드 사이더, 리차드 마우, 짐 윌리스, 토니 캠펠로, 브라이언 맥클라렌, 존 하워드 요더가 그런 흐름의 대표주자들이었다.

이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는 이 운동의 신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신학적 원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신학,” 로잔언약(1974), 기독교세계관운동, 해방신학, 민중신학,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좌파가 한국에서 진보적 복음주의의 탄생과 성장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진보적 복음주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개방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성경관은 근본주의자들의 것보다 진보적이며,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선 좌파적 경향을 보이고, 행동 방식은 명백히 엘리트주의적 혹은 학문적이다.

이처럼, 진보적 복음주의는 한국의 복음주의 역사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혹은 극대화하기 위해선, 특히, 대중을 포용하기 위해선, 자신의 엘리트주의와 학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환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서구신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접 수 일 (2015년 06월 30일)

수 정 일 (2015년 08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5년 08월 18일)